

# 傷寒六經에 對한 諸家說

金秀烈·尹暢烈\*

## I. 緒 論

東洋醫學은 《黃帝內經》이 이루어진 後에 그 理論體系가 確立되었으나, 그 具體的인 疾病의 治療는 거의 全部 鍼刺法을 썼으며 藥物治療를 쓴 곳은 겨우 11곳 뿐이다.<sup>1)</sup> 그 後 漢代(B.C.206~A.D.220)의 張機(二世紀中葉~三世紀·仲景)가 《傷寒雜病論》을 지어 《內經》의 理論을 藥物療法 中心으로 뒷받침하여 주었다. 《傷寒論》은 十卷으로 되어 있으며 《傷寒雜病論》의 傷寒部分을 西晉의 王熙(A.D.三世紀·叔和)가 收集, 整理, 編次하여 《傷寒論》이라 題명한 것이다.

《傷寒論》은 《內經》, 《難經》의 理論을 基礎로 漢代以前的 醫學을 總括하였으며, 人體가 風寒의 邪를 感受한 後에 發生하는 臟腑, 經絡의 病理變化와 臨床症候의 特徵을 把握하여 外感疾病의 發生과 發展의 變化規律, 治療原則, 藥劑의 配伍方法 等に 嚴密한 系統을 세워 理, 法, 方, 藥에 一貫性을 지녀 外感疾病과 其他 雜病의 辨證施治에 基本規律이 되어 後世 醫學發展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sup>2)</sup>

韓醫學의 領域에 있어 張機의 《傷寒論》을 研究, 發展시킨 著名한 醫家들로 形成된 學術流派를 “傷寒學派”라고 稱한다. 이 學術流派는 晉·唐代에 始作되어 明·淸에 이르기까지 오랜 時間동안 活潑한 研究活動을 通하여 韓醫學의 臨床發展에 對하여, 特히 外感病의 辨證論治方面에 있어 深遠한 影響을 끼쳤다. 이 ‘傷寒學派’의 形成과 發展過程을 大略 三段階로 보면 第一段階는 起始段階로 (晉·唐時代) 《傷寒論》原著의 收集, 整理를 重要視한 時期로 代表的인 사람으로는 晉의 太醫令 王熙를 들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미 散失된 傷寒條文과 方證에 對하여 廣範圍한 收集, 整理, 編纂을 進行하였다.

\*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1) 洪元植 中國醫學史 p.78

2) 成都中醫學院 傷寒論釋義 p.1

第二段階는 興盛段階로 (宋·金時代) 《傷寒論》原書에 對해 註釋과 뜻을 밝히는 段階이다. 이 時期의 代表의인 人物로는 成無己를 들 수 있는데, 그는 《經》으로써 《論》을 解釋하였고 《經》, 《論》을 結合하는 方法으로 傷寒의 學理를 밝혔으며 아울러 《論》中의 五十가지 主證에 대하여 歸納, 對比, 分析을 加하였다. 이 外에도 韓祗和는 《傷寒微旨論》을 지어 脈을 따라 證을 分辨하여 脈으로써 于先하였고, 龐安時는 《傷寒總病論》을 지어 病因을 重視한 發病方面을 밝히고 寒毒과 乘氣之說을 強調하였다. 朱肱은 《南陽活人書》에서 三陰三陽의 實質의인 問題를 提示하고 經絡說을 提昌하였고, 許叔微는 《傷寒九十論》, 《傷寒發微論》, 《傷寒百證歌》를 著述하여 理論과 臨床經驗 兩方面을 깊이 研究하였다.

第三段階는 成熟段階(明·淸時代)로 이 時期에는 張機의 原著 《傷寒雜病論》의 散失로 王熙가 編纂한 《傷寒論》이 顛倒, 錯亂이 甚하여 篇次를 거듭 考察, 修訂할 것을 主張하는 ‘錯簡重訂派’와 王熙와 成無己를 좇아 옛 것을 받들기를 主張하는 ‘維護舊論派’가 形成되었다. 이 外에도 《傷寒論》의 辨證論治의 規律을 거듭 研究하는 ‘辨證論治派’를 形成하였는데, 按方類證한 것은 柯琴의 《傷寒來蘇集》이 代表的이고, 按法類證한 것은 尤怡의 《傷寒貫珠集》이, 按症類證한 것은 沈金鰲의 《傷寒論綱目》이, 按因類證한 것은 錢潢의 《傷寒溯源集》이, 分經審證한 것은 包誠의 《傷寒審證論》이 代表的이다. 이들은 各者 《傷寒論》辨證論治의 原則을 다른 角度로 研究하여 外感傷寒의 辨證으로부터 漸次 內傷雜病의 辨證에 이르기까지 發展시켜 나갔다.<sup>3)</sup>

《傷寒論》研究方面의 論爭은 《傷寒論》의 編纂方面, 整理에 關한 論爭, 그리고 ‘六經’의 解釋에 關한 論爭으로 要約된다. 《傷寒論》의 ‘六經’解釋에 關한 論爭은 ‘六經’을 《內經》의 經으로 認識한 龐安時, 成無己와 이와는 反對로 《內經》과는 같지 않다고 主張한 陳言, 그리고 經絡으로 分經을 論한 朱肱, 氣化로 六經을 論述하여 傷寒 三陰三陽病을 六經氣化의 病이요, 經絡의 本身病이 아니라고 主張한 張志聰 등이 代表的인 學者들이다. 또 柯琴을 代表로 하는 學者들은 分經類證하고, 方으로 名證을 하였으며, 尤怡를 代表로 하는 學者들은 法에 따라 類證을 하였다.

이에 著者는 《傷寒論》 ‘六經’解釋에 있어 主張을 달리한 여러 學者의 生涯와 그의 思想을 整理하여 《傷寒論》本來 ‘六經’의 意味를 理解하고자 本 論文을 展開하고 ‘六經’에 對하여 正確히 알기 위해서는 ‘六經’과 六氣에 對한 關係를 研究함과 同時에 더 나아가 三陰三陽의 標本中 開闔樞에 對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3) 長春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p.11

## II. 本 論

먼저 中國醫學史에서 時代的으로 앞선 諸家의 生涯와 著作, 그리고 그의 主張을 研究하는 順序로 本 論文을 展開하고자 한다.

### 1. 宋代의 代表的인 醫家

#### 1) 朱肱

朱肱은 字가 翼中이며 號는 無求子로 晚號는 또 大隱翁이라 했다. 浙江의 吳興 사람이며 宋나라 元祐 三年(1088年)에 進士가 되었다. 宋의 徽宗時代에 醫郎과 醫學博士 等の 職責을 맡았었으므로 사람들이 朱奉醫라 불렀다. 朱氏는 醫에 能하고 傷寒에 精通해서 二十年 동안 潛心하여 《南陽活人書》를 썼다. 이 冊은 宋의 元祐 四年(1089年)에 始作하여 宋의 大觀 二年(1108年)에 完成되어 처음에는 《無求子傷寒百問》이라 이름하였다가, 繼續해서 校訂을 加하여 武夷張이 序를 쓰고, 宋의 政和 八年(1118年)에 다시 刻한 것을, 張仲景은 南陽쪽의 사람이었고, 華佗가 自身の 著書를 가리켜 일찌기 “活人”의 稱號를 붙였었으므로 《南陽活人書》로 改名하였다. 同時代에, 四明王作肅이 이 冊을 鑑本으로 하고, 前代 數十家의 冊을 모아서 必要한 部分을 取하여 附注로 삼아서 各 條文의 밑에 挿入하여, 題目을 《增釋南陽活人書》라 하였다. 萬歷年間(1573~1620年)에, 王肯堂, 吳勉學 등이 이 冊을 바탕으로 하여 《古今醫統正脈全書》를 들여다가 校訂을 可하였다. 책 題目은 《增注無求子類證活人書》라 하였다가 《類證活人書》라고 簡稱하였다. 이 冊은 總 二十卷으로 나뉘어 있으며, 一卷에서 十一卷은 百一問으로 되어 있어서 仲景奧義를 밝혀 놓았다. 第 十二卷에서 十五卷은 桂枝湯등 百十二方을 編纂해 놓았다. 十六卷에서 十八卷은 升麻湯에서 麥門冬湯까지 總 百二十六方을 收錄하였는데, 《外臺》, 《千金》, 《聖惠》 等の 方을 採擇하여 仲景의 未備한 바를 補充하였다. 끝의 十九, 二十卷에는 婦人傷寒과 小兒痘疹을 論하였다. 全體의 책은 綜合分析의 方法으로 자주 쓰는 쉬운 文字로 問答의 形式을 取해서 傷寒證治의 差異點을 簡述하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였으므로, 仲景의 學說을 넓히는데 있어서 큰 貢獻을 하였다.<sup>4)</sup>

朱氏의 傷寒論 研究의 特徵은 經絡으로서 三陰三陽을 論하고 陰陽表裏를 들어 辨症의 大綱을 삼은 것이다. 同時에 또한 辨病과 辨症을 強調하였다.

4) 長春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p.21

그는 《活人書》中에서 말하길, “張機의 傷寒論은 그 말이 그윽하고 우아하나 經絡에 精微롭지 못하면 能히 깨닫지 못한다(張長沙 傷寒論 其言奧雅 非精于經絡 不能曉會).”<sup>5)</sup> 하여 책머리에 經絡說을 論하였고, “傷寒을 治療함에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니, 經絡을 알지 못하고는 어둠속을 더듬으며 걷는 것 같아 邪氣의 所在을 알지 못하므로 往往 病이 太陰에 있는데 오히려 少陰을 攻擊하기도 하고, 厥陰證에 少陽을 和하게 하여 寒邪가 除去되지 않고 眞氣만 損傷되게 하는 것이다.”하였다.

朱氏의 傷寒治療는 經絡을 辨別함에 《素問·熱論》과 《傷寒論》의 內容을 結合하였다. 그는 ‘未診先問’을 主張하였으니, 例를 들면 “病이 發熱 惡寒 頭項痛 腰脊強하면 病이 太陽經에 있음을 알 수 있고, 身熱 目痛 鼻乾 不得臥 하면 病이 陽明經에 있음을 알 수 있고, 胸脇痛 耳聾 口苦 舌乾 往來寒熱而嘔 하면 病이 少陽經에 있음을 알 수 있고, 腹滿 咽乾 手足自溫 或自利不渴 或腹滿時痛 하면 病이 太陰經에 있음을 알 수 있고, 引飲惡寒 或口燥舌乾하면 病이 少陰經에 있음을 알 수 있고, 煩滿 囊縮하면 病이 厥陰經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고 하였고, 그런 後 切脈으로 表裏虛實 등의 정황을 辨別하여 治療한다 하였다. 그는 또한 六經病의 脈象을 言及하였으니 “太陽은 尺寸脈 俱浮하고, 陽明은 尺寸脈 俱長하고, 少陽은 尺寸脈 俱弦하고, 太陰은 尺寸脈 俱沈細하고, 少陰은 尺寸脈 俱沈하고, 厥陰은 尺寸脈 俱微緩하다.”<sup>7)</sup> 하였다.

六經病과 經絡의 關係에 對해 進一步한 說明을 하였으니, 朱氏는 《靈樞》의 經絡學說에 根據하여 病理解說을 進行하고 있다. 例를 들어 少陰經이 病을 얻는데 對한 說明으로 “足少陰之經 其脈起于小指之下 斜趾足心 別行者 入跟中 止至股內後廉 貫腎絡膀胱 直行者 從腎上貫肝膈 入肺中 系舌本. 傷寒熱氣 入于臟 流于少陰之經 少陰主腎 腎惡燥 故渴而引飲 又經發汗吐下已後 臟腑空虛 津液枯竭 腎有餘熱亦渴 故病人口燥舌乾而渴 其脈尺寸俱沈者 知少陰經受病也”<sup>8)</sup> 라 하여 “少陰은 腎을 主하는데 腎은 燥를 싫어하니 口渴과 引飲의 症勢가 나타나고 또한 發汗, 吐, 下後에 臟腑가 空虛하고 津液이 枯竭하며 腎에 餘熱로 渴症이 있으니 故로 病人이 口燥舌乾而渴의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그 脈에 있어 尺寸이 모두 沈한 것은 少陰經이 病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六經의 病을 論하였으니, 傷寒病機의 理論을 밝히는 方面에 있어 이것이 그의 獨特한 見解이다.

5)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p.7

6) 上揭書 p.55

7) 上揭書 pp.59~69

8) 上揭書 p.67

위에서 우리는 朱肱이 識經絡의 重要性을 十分 強調하고 있음을 可히 알 수 있으며, 아울러 足六經(足太陽膀胱, 足陽明胃, 足少陽膽, 足太陰脾, 足少陰腎, 足厥陰肝)의 循行과 生理, 病理의 特徵으로서 傷寒 三陰三陽의 病症의 發生, 傳變, 病位와 病理機轉을 解釋하려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陽經을 예로 들어보면;

“足太陽膀胱經은 目內眥에서 始作하여 머리로 올라가서 風府로 이어지며 四갈래로 나뉘어서 項을 내려와 正·別脈과 아울러서 上下六道로 背를 行하여 몸에서 經(縱線)이 된다. 太陽經은 모든 陽氣를 主하여서 或 中寒邪하면 반드시 發熱하고 惡寒하며, 項背腰脊에 波及되게 되는데 이는 太陽經이 지나는 곳이라 그렇다. 이제 頭項痛에 身體가 아프고, 腰脊強하고 그 脈의 尺寸이 모두 浮脈인 者는 太陽이 受病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足陽明胃經은 脾에서 始作하여 目에 絡하여 咽을 내려가서는 四道로 나뉘어서 正·別脈과 아울러서 六道로 人身의 腹部를 緣고 있다. 무릇 모든 陽은 表에 있고, 陽明은 肌肉을 主하며 脾를 絡하므로 病人이 身熱이 있고 目疼하며 鼻乾하고 不得臥하며 脈이 尺寸이 모두 長한 者는 陽明이 受病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足少陽膽經은 目外眥에서 始作하여 耳에 絡하며, 四道로 나뉘어서 缺盆을 下하여 脇을 따라서 正·別脈六道를 아울러 上下로 經營, 百節, 流氣의 三部를 主管하니, 病人이 胸脇이 痛하고 耳聾하며 或은 口苦咽乾 하거나 或은 寒熱이 往來하고 嘔하며, 그 脈이 尺寸이 모두 弦한 者는 少陽經이 受病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그러나, 朱肱이 足六經을 들어서 傷寒의 三陰三陽을 論하였으므로, 後世의 醫家들도 習慣的으로 傷寒 三陰三陽의 病症을 ‘六經病症’이라 稱하며, 張仲景의 이러한 辨症方法을 ‘六經辨症’이라 한다. 實際적으로 《傷寒論》原著의 各篇을 다 찾아봐도 ‘六經’이란 이름은 없고, 各篇의 篇名은 모두 “辨○○病脈證并治”로 되어있지 “辨○○經病脈證并治”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方式의 ‘經絡說’로 三陰三陽의 具體的 內容을 解釋하는 것은 비록 그 合理的인 部分도 있으나 三陰三陽의 全部의 病症을 다 解釋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仲景의 本뜻에 完全히 符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一家의 學說로서, 學術을 널리 펴서 이름을 떨쳤으며 ‘經絡說’을 처음 創始하여 傷寒 三陰三陽의 實體를 論했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後世에 미치는 影響도 비교적 컸다.

9)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p.59

10) 上揭書 p.61

11) 上揭書 p.63

## 2) 龐安時

龐安時は 字가 安常이고 蕪州 蕪水人이며, 神哲間(1068~1100年)의 名醫로 略 11世紀 後期에 살았고 五十八世로 卒하였다. 그의 著作의 主要한 것은 《傷寒總病論》이고, 그 外에 《難經辨》, 《主對集》, 《本草補遺》 등이 있다.

그가 지은 《傷寒總病論》은 모두 六卷으로 第一卷은 먼저 敍論으로 傷寒, 溫病, 暑病 等の 病機, 病傳, 病變, 治法 等を 論했는데 總論性質의 部分이고 그 다음이 六經의 證治를 論하였다. 《敍論》에서 말하기를 “天寒이 折하는 바는 則 陽氣를 折하는 것이다. 足太陽은 모든 陽氣를 主管하여 그 經은 脊膂를 挾하며 五臟六腑의 俞를 꿰뚫고 腦로 上入하므로 始作에 있어서 太陽이 受病하는 것이다. …… 陽經이 먼저 病을 받으므로 다음으로 陰經에 入한다. 陽은 主生하므로 足太陽水는 足陽明土로 傳하고 土는 足少陽木으로 傳하여 微邪가 된다. 陰은 主穀하므로 木은 足太陰土로 傳하고 土는 足少陰水로 傳하고 水는 足厥陰木으로 傳하여 第六,七日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足厥陰에 傳할 것이니, 肝木은 반드시 移氣하여 脾土를 克하고 脾는 다시금 賊邪를 받게 되므로 五臟六腑는 모두 危殆하게 된다.”<sup>12)</sup> 라고 하여 六經을 《內經》의 經으로 認識하였다.

## 3) 陳言

陳言은 字가 無擇이고 靑田人이다. 南宋 紹興·淳熙間(1131~1189年)의 사람인데 그의 生涯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著書로는 《三因極一病證方論》(簡稱 三因方)이 있다. 그는 모든 疾病을 三因에 따라 分類하려고 했는데 그 勞力이 本書의 編輯에도 나타나 있다. 第一卷의 脈論을 除外한 第二卷에서 第七卷까지는 外因病으로 中風, 中寒, 中暑, 中濕, 痺病, 脚氣, 傷風, 傷寒, 傷暑, 傷濕, 五運六氣의 病 및 疫病 등이 들어 있고, 第八卷은 內因病으로 五臟六腑虛實寒熱論治 및 痼冷, 積聚, 五勞六極, 氣病 등이 들어 있다.

《傷寒辨正》에서 말하기를 “《內經》에서 論한 傷寒은 다만 足三陰三陽 六經의 傳受와 낮는 日數 및 各各 그 臟腑經絡을 따라서 流注去處하는 것과 汗下를 하여 그것을 辨證하고, 아울러 兩感과 脈이 病形에 相應하는 것에 關해서만 言及했을 따름이다. 張機에 이르러서는 伊尹湯液으로 治法을 作하고 兼하여 傷風, 濕, 濕 等に 對해서 말하였다. …… 晉에 이르러서는 그 意味를 理解하지 못하여 編集을 하기에 이르렀고, …… 그 以後로 그것을 踏襲한 者가 이루 해야될 수 없다. 所謂 《百問》, 《證治》, 《提綱》, 《目錄》, 《提要》, 《備全》, 《活人書》, 《傷寒論》과 圖形으로 脈을 表現한 것 등은 모두 博采晉集한 것이다”<sup>13)</sup> 라고

12) 邢拓祺外1人 《傷寒總病論》釋評 p.3

하여, 그는 이미 《素問·熱論》과 仲景傷寒六經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王叔和의 編次가 잘못되었음을 責亡하였으며, 아울러 後人이 그 잘못되었음을 踏襲하는 것을 責亡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金·元時代의 代表的인 醫家

### 1) 成無己

成無己는 鞠攝(지금의 山東省 聊城縣)人으로, 北宋의 嘉祐, 治平年間(1056~1067年)에 태어났고, 靖康(1126年)後에는 그 땅이 金에 屬하게 되어, 金人이 되었으며 金·正隆丙子(1156年)에 이르기까지 90世를 살았다. 그의 著作으로는 《傷寒論注》十卷과 《傷寒明理論》三卷이 있다.

成氏는 傷寒의 六經을 《內經》에서 말하는 經絡의 經으로 認識하였다. 그는 《辨脈法第一》篇에서 말하기를 “傷寒의 病은 一日太陽,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厥陰, 六일에 이르러서는 傳經이 끝이 난다. 七日에는 나아가 하는데 七일에 낮지 않으면 이를 再傳이라 한다. 《經》에 이르기를 再傳經이라는 것은 다시금 太陽에서부터 傳하여 十二일에 이르면 다시금 厥陰에 이르러 傳經이 끝나서 十三일에 나아가 한다. 十三일에 낮지 않으면 이를 過經이라 한다.”<sup>14)</sup> 라고 하였고, 또 그는 厥陰病篇에서 이르기를 “手의 三陰三陽은 手十指에서 相接하며 足三陰三陽은 足十指에서 相接한다.”<sup>15)</sup> 라고 하여 成氏가 手足으로 相接함을 說明한 《傷寒論》의 六經은 《內經》의 經脈임을 알 수 있다.

《辨太陽》에서 또 이르기를 “太陽主表하니 一日에는 太陽受邪하고 二일에 이르면 마땅히 陽明으로 傳하게 된다.” “傷寒二三日에 陽明少陽證이 없으면, 邪가 傳하지 않고 다만 太陽經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으므로 仲景이 말한 傳과 不傳은 오직 證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日傳一經하는 것이 아님을 強調하였다.

成氏는 《素問·熱論》에 있는 日傳에 對한 文章과 本論에 있는 “一日太陽, 二三日陽明, 少陽不見爲不傳”을 보고 傷寒日傳一經이라고 認識하게 되었다. 다만 本論의 二三日陽明, 少陽證不見爲不傳은 傷寒이 恒常 日傳하는 것이 아님을 反證할 수 있다. 또한 二三日에서 七日以上 餘全히 太陽에 머무는 것도 있으므로 이것 역시 傷寒은 日傳一經하는 것이 아님을 證明하는 것이다. 이렇듯 成氏는 傷寒

13) 姜春華 歷代中醫學家評析 p.46

14) 成無己 辨脈法第一 p.8

15) 上揭書 p.20

六經을 《內經》에서 말하는 經絡으로 認識하였는데 이는 成氏가 張仲景의 《傷寒論》의 自序中에서 《素問》, 《九卷》, 《八十一難經》 등의 著作을 利用하여 著述했다고 하는 內容을 보고 每番 《內經》, 《難經》 등의 理論을 引用하여 仲景의 學을 밝혔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成氏 註釋《傷寒論》에 있는 大承氣湯을 말하면 “《內經》曰 熱淫於內 治以鹹寒 佐以苦甘 芒草鹹寒以除熱 大黃苦寒以蕩實 甘草甘平 助二物 推陳而緩中”<sup>16)</sup> 이라 하고 또한 註解四逆湯에 말하기를 “《內經》曰 寒淫於內 治以甘熱” 또 말하기를 “寒淫所勝 平以辛熱 甘草薑附相合 爲甘辛大熱之劑 乃可發散 陰陽之氣”<sup>17)</sup> 라 하여 成氏 註解《傷寒論》의 方藥에서 《內經》中에 四氣五味理論의 指導대로 모두 根據를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욱 더 分析하고 註解하고 條理와 根據가 分明하며 說得力이 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例의 注本에서 보듯이 사람으로 하여금 理致가 있고 根據가 있다고 느끼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傷寒論》과 《內經》, 《難經》의 理論을 結合해서 理解하고 더 나아가 融合貫通하게 하니 이 點이 比較的 크다. 이는 成氏 傷寒學의 最大 特色이다. 仲景은 傷寒雜病論을 쓸 때에 主로 參考한 책이 《素問》, 《靈樞》와 《八十一難》 등이었기 때문에 《內》, 《難》의 이름으로 《傷寒論》을 解釋하는 것은 比較的 妥當한 것이며 仲景의 本뜻에 더 쉽게 接近할 수 있기도 하다.

### 3. 明代의 代表的인 醫家

#### 1) 方有執

方有執은 字는 中行이고 安徽省 歙縣人이다. 明代 嘉靖二年(公元 1523年)에 태어나 《傷寒論條辨》을 펴낼 當時 萬曆 二十一年(1593年) 當時 71세로 여전히 生存하고 있었는데 具體的 死亡年度는 正確치 않다. 方氏는 數十年間 傷寒論에 專念研究하여 비로서 《傷寒論條辨》八卷을 내 놓았다. 그는 말하기를 《傷寒論》은 年代가 멀고 오래되어 일찌기 仲景의 舊本은 喪失되고 王叔和가 編纂한 것도 또한 後人이 고친 것이므로 《傷寒論》을 철저히 研究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仲景의 本來 意圖에 비추어 考訂移整하여야 그 本來 面目을 되돌릴 것이라 하여 ‘錯簡重訂之說’을 부르짖었다. 따라서 그가 말하기를 “《條辨》이라는 것은 王叔和의 오래된 方向을 바로잡아 本來대로 되돌림을 이룬 것이다”<sup>18)</sup> 하였으니 그가

16) 葉成炳外 1人 傷寒明理論闡釋 p.234

17) 上揭書 p.248

18) 方有執 傷寒論條辨 p.2



책을 지은 目的을 分明히 하였다. 그의 錯簡觀은 적지 않은 醫家들의 積極的인 呼應을 얻었으며 이런 風潮가 크게 일어나 追從하는 者가 다투어 일어났다. 例를 들어 喻昌, 張路玉, 黃元御, 吳儀洛, 周揚俊, 章楠 등이 모두 ‘錯簡’을 가지고 《傷寒論》을 말한 有名한 人物들이다.

대개 學者들은 《傷寒論》의 六經을 經脈의 經으로 認識하거나, 《內經·熱論》의 六經으로 認識하여 그 症狀이 전혀 相通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方氏《圖說》에서는 《傷寒論》의 “六經의 經이 經絡의 經과 不同하다” 하여 ‘六部’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經絡으로 認識하면 經에 病이 局限될 것이다. 部로 하면 經絡臟腑를 包含할 수 있고 根據가 되는 部分과 施治가 있다. 後에 慈溪 柯韻伯이 《傷寒論翼》을 지었는데, 六經을 疆界로 삼았으니 方氏에 根源을 둔 것이다. 方氏는 六經이 臟腑와 四肢百骸를 包含한다고 認識하였고, 모든 病은 經絡을 떠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或問·問經何以十二》篇에서 말하기를 “六이라고 하면 十二가 그 中에 있는 것이요, 十二라고 하면 五臟六腑, 四體百骸, 周身內外等 그 어느 것도 그 中에 없는 것이 없다. 經은 人身中에서 一定하여 움직이지 않고 어느 時期에도 恒常하다. (解剖學的으로 말하면)人體에 疾病이 發生하였을 때 어느 經을 가지고 말할 것인가? …… 어찌 惟獨 傷寒의 一病만 그러하다고 할 것인가! 모든 病이 다 그러하다.”(病症의 表現은 解剖學的인 位置를 떠나지 않으니 病人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 解剖學的인 位置는 사람마다 一定하다). “手經의 陰陽은 人身의 半을 차지하고 足經의 陰陽도 半을 차지한다. 만약에 半은 傳하고 半은 傳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一身之中에 마땅히 半은 病들고 半은 病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天下에 傷寒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아니한데 일찌기 이러한 사람을 보았는가?”<sup>19)</sup>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陽病陰病圖說》中에서 이르기를 “經絡筋脈의 類는 모두 十二로 해서 三陰三陽에 配屬되어 있는데 總括하여 六經이라 名稱한다. (《傷寒論》中의)六經의 經과 經絡의 經은 같지 않다. 六經이라는 것은 오히려 儒家의 六經의 經이요, 오히려 部를 말함이다. …… 萬若에 (《傷寒論》中의)六經의 經을 直接經絡의 經으로 看做한다면 그 道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니 잘못됨을 이루 말할 수 없다.”<sup>20)</sup>라고 하여, 여기에서 그는 六經이 經脈이 아니라고 確信하고 있는 見解가 뚜렷하다. 그러나 그는 六經의 症狀을 注解할 때에 또 經脈으로 解釋을 하였으니 陽明胃家實을 除外하고는 모든 經을 經脈으로써 그 起始終止와 經過를 說明하고 있다. 太陽經을 例로 들면 “太陽은 膀胱經이다. 그 脈은 目內眥에서 始

19) 方有執 前揭書 p.20

20) 上揭書 p.27

作하여 이마로 올라가 정수리에서 交叉한다.”라고 하여 六經이 經脈이 아니라고 해놓고 經脈으로 解釋하여 方氏 自體도 책의 앞과 뒤에서 矛盾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主張은 後에 柯韻伯의 《傷寒論·翼》中에 六經의 經界를 세움에 實際적으로 方氏가 根源이 되었다.

#### 4. 清代의 代表的인 醫家

##### 1) 張璐

張璐의 字는 路玉이고, 號는 石頑이고, 스스로 仲景의 四十三代孫이라 했으며 吳江長洲人이다. 明·萬曆 四十五年(1617年)에 태어나서 淸·康熙 三十七年(1698年)까지 八十二世를 살았다. 著書로는 《張氏醫通》, 《本經逢源》, 《傷寒續論》, 《傷寒緒論》, 《傷寒舌鑑》, 《傷寒兼證析義》, 《診宗三昧》, 《千金方衍義》 등 書가 있다. 그 中에서도 《張氏醫通》이 가장 著名하다.

張仲景은 《傷寒論·太陽篇》中에서 말하기를 “太陽病 頭痛이 七日以上에 이르러 스스로 낫는 것은 그 經을 다 行했기 때문이다. 萬若 再經을 하려 한다면 足陽明을 鍼 놓아서 經으로 不傳하게 한 卽 낫는다.” 張氏는 注에서 “足陽明에 鍼 놓으라고 한 것은 衝陽을 刺하라는 말이니 邪氣로 하여금 陽明으로 歸納하게 하여 他界를 犯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他經은 그렇지 아니하니 무릇 陽明은 中土로 萬物이 모두 돌아오는 바이니 다시 傳하는 바가 없는 곳이다. 或은 이르되 傷寒은 六七日에도 頭痛이 그치지 않는 者가 많으니 經에 이르되 七日에 太陽病이 衰하여 頭痛이 조금 낮게 된다는 것은 則 病이 六日에는 太陽에 있고 七日에 이르면 衰하기 始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所謂 七日에 經盡한다는 것은 邪氣가 비록 一經에 머무르고 있지만 사람의 榮衛가 흐르는 것은 六日에 六經을 두루 돌며(榮衛는 一夜에 몸을 五十回도니 어찌 다만 六日에 두루 돈다고 하겠는가!) 七日에 이르러 다시 行하니 邪를 받은 經은 正氣가 回復되어 邪氣가 外解하게 되는 것이다. 萬若 七日에도 邪氣가 罷하지 않으면 邪熱이 極盛하여 반드시 再經을 하고 解하려 할 것이니 一日에는 太陽이요, 二日에는 陽明이요, 六日이면 六經을 마친다는 것이 반드시 準則은 아니다.”<sup>21)</sup> 라고 하여 《內經·熱論》의 經絡說을 引用하였다.

21) 張璐 傷寒緒論 p.10

## 2) 張志聰

張志聰의 字는 隱庵이며 明末清初의 浙江 錢塘人이다. 明末에 侶山堂을 짓고 同志들을 모아 그 곳에서 醫學을 講論하였다. 順治中에서부터 康熙初(1644~1662年)까지 數十年間 軒岐의 學을 談하는 者가 다 모여들었으므로 外郡사람들이 武林을 稱해 醫薮라 하였다. 註釋한 醫書로는 《素問》, 《靈樞》, 《傷寒論》, 《金匱要略》, 《神農本草》 등이 있는데, 代表的인 著書로 《素問集註》九卷, 《靈樞集註》九卷 등이 있다. 康熙 二年에 《傷寒論宗印》八卷을 選했는데 諸家의 訓詁를 모으지 않고 本文의 參觀에 그쳐 以經解經하였으며, 또 先世의 遺意를 印證했으므로 宗印이라고 했다. 《傷寒論集註》六卷은 稿未成에 張氏가 肺病으로 죽자 高世栻이 繼述하여 成事하였다. 또 《侶山堂類辨》二卷(康熙九年)과 《本草崇原注》三卷이 있다.

張氏는 생각하기를 運氣學說은 《傷寒論》의 重要的 理論的 根據이며, 仲景의 自序中에서 選用한 《陰陽大論》은 王冰이 《素問》中에 補充한 五運六氣中의 七篇大論이다. 《傷寒論》에서 《陰陽大論》을 選用한 것은 “天有六氣 地有五行 人乘天地之氣而生하여 兼有此五行六氣”인 때문이다. 또한 人身의 氣는 自然의 氣와 密接한 關係가 있어서 “人之陽氣는 應天氣之在外하고 五臟五行은 應五運之在中하니 升降出入이 排轉無端하여 若爲風所傷하면 始見外內淺深之病”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張氏는 이것이 바로 仲景이 運氣學說을 立論의 根本으로 삼은 原因이라고 생각하여 《傷寒論》을 工夫함에 있어서 五運六氣를 工夫해야 비로소 그 뜻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人身六氣의 生産과 分布에 對하여 張氏는 自身의 생각을 論述하기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人身의 六氣는 內生于臟腑, 外布于體表하며 君·相二火는 腎에서 發原한다. 太陽의 氣는 膀胱에서 生한다. 風氣는 肝木에 本을 두고 있으며, 濕氣는 脾土에 本을 두고, 燥氣는 胃金에 本을 두고 있다.”<sup>22)</sup> 以後로는 各기 그 經을 따라서 皮膚와 關係하여 主管한다. 六氣의 皮膚上에 있어서의 分布는 太陽在背, 陽明在胸, 少陽在脇, 太陰在腹, 少陰在臍下, 厥陰在季脇小腹之際로 三陰三陽의 氣는 各 部位의 皮膚와 肌腠之間을 運行한다. 그러나 六氣中에서 惟獨 太陽의 氣는 背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全身을 主管한다라고 하였다. 張氏는 일찌기 “通體의 太陽”과 “部分의 太陽”을 天과 日에 比喩하여 말하기를, “通體의 太陽은 天과 같고, 部分의 太陽은 日과 같은데, 所謂 陽氣라는 것은 天과 日과 같다는 意味이다.”라고 하여 通體 太陽의 氣는 三陰三陽 六氣의 外를 運行하고, 六氣는 通體 太陽의 氣의 中을 運行하는 故로 通體 太陽의 氣는 바깥으로는 一身의 皮毛

22) 侶山堂類辨 傷寒傳經辨 p.66

를 主管하고 또한 안으로는 臟腑의 俞를 統率하고 있어서 膚表의 第一層을 이루고 있고 衛外의 作用을 한다. 分部 六氣에 있어서는 皮膚 肌腠之間을 運行하여 第二層을 形成하나 部位가 皮毛와 近接해 있으므로 그 氣는 太陽으로 歸納이 된다. 그러므로 그의 傷寒 太陽病에 대한 認識에도 通體 太陽病과 部分 太陽病의 區別이 있다고 主張하였다. 예를 들면 惡寒發熱 身疼脈浮 等の 全身症狀은 通體 太陽病이요, 頭項強痛 項背強几几 等の 局部症狀은 分部 太陽病이다. 分部六氣와 通體 太陽의 氣, 三陽의 氣와 三陰의 氣는 分布에 있어서 비록 內外의 差異가 있으나 서로間에는 上下相貫, 表裏相通, 相互轉化하는 關係가 있다. 張氏는 指摘하기를 “三陰三陽은 出入, 離合이 있으니 陰陽의 經常變易을 알지 못하면 可히 더불어 傷寒을 論할 수 없다.”<sup>23)</sup> 라고 하였다. 三陽은 在外하고 三陰이 在內한 것을 說明은 했지만 陰陽의 氣의 離合出入 때문에 三陽의 氣로 하여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안에는 陰陽이 있게 되고 또한 三陰의 氣를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여 밖에도 陰陽이 있게 되니 그 具體的인 狀況은 “三陽在外 太陽은 主氣하여 常行于地中한다. 陽明은 主闔하여 居中土한다. 少陽은 主樞하여 內行于三焦한다. 이는 三陽이 在內하면서 內有陰陽한 것이다. 三陰은 在內하니 太陰은 爲開하여 而主皮膚之肉理하고 少陰은 爲樞하여 外浮于膚表한다. 厥陰은 爲陰中之少陽하여 而通會于肌腠 하니 此는 三陰在外而 外有陰陽也라.”<sup>24)</sup>하여 所謂 “太陽主天氣而常行于地中”이란 것은 實際上으로는 太陽의 氣가 이미 三陽의 表를 行하고도 역시 五臟의 裏까지 들어간다는 말이다. 위의 것에 根據하여 보면 張氏는 三陰三陽 六經氣化論으로 傷寒을 認識하여 일찌기 말하기를, 經氣를 잘 알지 못하여 太陽을 膀胱이라 하고 陽明을 胃라 하며 少陽을 膽이라고 한 것을 일러서 “適其有形 亡乎無形從其小者 失其大者”라 하였다. 그는 三陰三陽의 病이 大概 六經氣化爲病이며 經絡本身의 病變은 아님을 強調하였다. 또한 人身의 六氣는 天地의 六氣와 相應하여 無病하면 變함없이 運行하고 萬若 “外感風寒則 以邪傷正 始則 氣與氣相感 繼則從氣而入經”이라 하였다. 所謂 “始則氣與氣相感 繼則從氣而入經”이란 것은 天의 六氣가 人身의 六氣를 感傷하게 되면 氣病으로 始作해서 經病으로 轉化됨을 說明한 것이다. 張氏가 六經氣化爲病을 強調함으로써 經絡存病을 排除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傷寒論集註·本義之八》에서 이르기를 “六經傷寒者 病在六氣而見于脈 不入于經俞 有從氣分而入于經者 十止二三”의 말로서도 그 뜻을 說明하였다. 傷寒六經 氣化爲病의 大綱도 다음과 같다. 太陽病 脈浮 頭項強痛은 太陽이 寒水의 氣임을 말하는 것이며 陽明病 胃家實은 陽明이 燥熱의

23) 傷寒論集註·本義之九 p.70

24) 傷寒論集註·本義之九 p.75

氣를 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少陽病 口苦 咽乾 目眩은 少陽이 相火의 氣를 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太陰病 腹滿而吐는 太陰이 濕土의 氣를 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少陰病 脈極細 但欲寐는 少陰이 標本 寒熱의 氣化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厥陰病 消渴 氣上撞心 心中疼熱은 厥陰이 안에서는 少陽의 火化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六經氣化의 病變에 屬하는 것이다. 그러나 張氏가 六氣分布를 論함에 있어서 局所의 太陽과 通體의 太陽을 區別하였기 때문에 傷寒 太陽病의 認識에 있어서는 通體太陽과 分部太陽의 區別이 있게 되는 것이다. 同時에 그는 또 通體太陽의 氣는 가장 體表에 있으며 分部太陽의 氣는 皮膚之間을 運行한다고 보았으므로 外邪傷人에 있어서 病은 太陽에서 多發하며 萬若 邪氣가 太陽氣를 傷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 왔다면, 이는 六經直中 風寒之證으로 보았다. 張氏는 三陰三陽의 氣가 表裏相通하고 離合傳化하는 것에 對해서는 六氣의 陰中有陽하고 陽中有陰한 것으로 說明하였으며 이는 傷寒 六經病中에서 나타나는 各種의 陰陽表裏寒熱의 變化와 密接한 關聯이 있다. 太陽病의 附子湯證이나 少陰病의 三急下證과 같은 複雜한 病證의 境遇는 이렇게 해서 造成된 것이다. 結論의으로 張氏의 六經氣化爲病設은 生理的인 方面에서 人身 六氣의 產生과 分布, 運行 等の 狀況을 說明하려 試圖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傷寒 三陰三陽의 病理機轉에 對해 研究를 하였으며 이는 後世人이 傷寒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參考가 되고 있다.

### 3) 柯琴

柯琴의 字는 韻伯이고 號는 似峰이며 康熙時 浙江 慈溪人이다. 博學多聞하고 詩와 古文에 能했다. 雍正己酉에 傷寒論을 遂條注釋하여 《傷寒來蘇集》 四卷을 지어 方喻諸家의 誤를 補正하였다. 다시 《傷寒附翼》 二卷이 있는데 모두 철저히 窮究하여 可謂 精而不亂이라 말할 수 있다. 甲寅에 또 《傷寒論翼》 二卷을 지었는데, 仲景의 文을 섞어 論하여 一法을 講함에 仲景의 뜻을 다 들어내어 讀者들이 原書에만 執着했다는 評을 하지 않게 했다.

《傷寒論》 六經의 意味에 對하여, 옛 사람들은 經絡으로 解釋하기도 하고, 運氣로 解釋하기도 하였으나, 柯氏는 이들과 다른 意見을 보였으니, 六經은 地域의 經界와 같은 것으로, 經絡은 六經의 道路가 된다고 認識하였고, 또 六經으로 百病을 보았다.

#### ① 六經地面學說의 創立

《傷寒論翼·六經正義》에서 말하길 “仲景의 六經은 經界의 經이지 經絡의 經이 아니다. 仲景의 六經은 六個의 區域으로 나눈 것이니, 該當되는 것이 廣範圍

하다. 비록 脈으로서 經絡을 삼았지만, 오로지 經絡에만 局限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sup>25)</sup> 라고 하였다.

그는 《素問·皮膚論》에서 말한 “皮膚에는 分部가 있고 脈에는 經紀가 있어서 病이 생기는 것이 다르다. 그 部分을 左右上下로 區別하여 各 陰陽이 있고, 모든 經絡이 始作되고 끝난다.” 등의 말이 仲景이 六經部位를 創立하는데 根源이 된다고 認識하였다. 이에 그는 六經을 여러나라의 國境과 同一하게 認識하여 概括적으로는 “腰以上은 三陽의 區域이니 三陽은 主外하고, 裏에 根本하며…… 腰以下는 三陰의 區域이니 三陰은 主裏하고 外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說明하고, 具體적으로 區分하여 “안으로는 心胸으로부터 말미암고, 밖으로는 巔頂에서부터, 앞으로는 額巔까지, 뒤로는 肩背까지 미치고 下로는 足까지 이르르며 內로 膀胱과 合하는 것, 이것이 太陽區域이니 이 經은 榮衛를 統率하고 一身의 表證을 主管한다. 內로는 心胸으로부터 胃 및 腸까지 이르고 外로는 頭로부터 시작하여 얼굴에서 背에까지 미치고 下로는 足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陽明區域이다. 心에서 咽까지 이르며 口頰으로 나오며 耳目까지 올라가며 비스듬히 巔까지 이른다. 外로는 脇에서부터 內로는 膽에 屬하는 것, 이것이 少陽區域이다. 腹에 該當하며 脾부터 二腸魄門까지 미치는 것이 太陰區域이다. 腹에서부터 兩腎 및 膀胱溺道까지 미치는 것이 少陰區域이다. 腹에 該當하며 肝에서 부터 위로 膈을 뚫고 心에 이르며 脇肋部를 따라 小腹宗筋까지 미치는 것이 厥陰區域이다. 이 經이 三焦를 通行하여 一身의 裏證을 主管한다.”<sup>26)</sup>고 하였다. 柯氏는 아울러 “經絡의 經은 六經의 道路를 意味함이니 六經區域은 아니다.”<sup>27)</sup>라고 明確하게 지적하였다.

六經에 邪가 侵犯하는데 있어서, 그는 客邪와 正邪의 區別이 있다고 認識하였다. 客邪는 大概 三陽을 따라 外에서 들어오며, 正邪는 대개 三陰으로 말미암아 內에서 生한다. 萬一 六經의 形態를 明確히 안다면 能히 疾病의 病機를 把握할 수 있으며 六經의 侵入經路를 詳細히 알면 이에 治病의 規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② 六經으로 百病을 보았다.

《傷寒論注》“自序”에서 이르기를 “나는 仲景의 六經으로 百病을 立法하였으나 傷寒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傷寒雜病은 治法에 있어서 두가지 理論이 없고 六經으로 制限되어 있다. 六經에 各各 傷寒이 있는 것이요, 傷寒에만 惟獨 六經이 있는 것이 아니다. 傷寒을 治하는 者는 다만 傷寒에만 拘碍를 받고 그 中

25) 柯琴 傷寒來蘇集 傷寒論翼 pp.4~5

26) 柯琴 傷寒來蘇集 傷寒論翼 p.6

27) 上揭書 p.6

에 雜病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雜病을 治하는 者는 《傷寒論》이 雜病과 無關하다고 하여 다른 것으로 取扱한다.”<sup>28)</sup> 라고 하였고 《論翼》에서 이르기를 “무릇 條文中에서 傷寒이라 이름되지 않은 것은 雜病과 같은 것이다.”<sup>29)</sup> 라고 하여 “六經分證은 모두 傷寒과 雜病을 兼하였다.”를 強調하였다. “仲景은 惟獨 《太陽篇》에서 그 名稱을 分類하여 傷寒, 中風, 中暑, 溫病, 濕痺라 말하고 他經에서는 言及하지 않은 것은 卽 한 番의 例로서 나머지를 貫通하도록 한 것이다. 기타 結胸, 臟結, 陽結, 陰結, 癍熱發黃, 熱入血室, 譫語如狂 등은 或은 傷寒으로 因하고 或은 傷寒으로 因하지 아니하여 複雜多端하니 바로 傷寒雜病合論의 뜻임을 알 수 있다. 무릇 傷寒外에는 모두 雜病이니 病名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어 六經으로 나누어 놓았다. 傷寒中에 雜病이 가장 많으니 內外와 虛實이 挾雜되어 있다.”<sup>30)</sup> 또 “叔和는 太陽三證을 앞에 나누고 厥陰諸證을 뒤에 나누었으니 後世 사람이 分門類證하는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仲景 藥法은 百病으로 하여금 六經에 該當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였음을 어찌 알겠는가? 다만 類經에서 根本을 求하고 모든 病名에서 枝葉을 求하지 않는다.”<sup>31)</sup>라고 하였다. 이는 張仲景의 六經으로 傷寒, 雜病 등 모든 疾病의 治療를 할 수 있으며 또한 百病을 治療하는데 六經辨證이 始發이 됨을 알 수 있다.

以上으로 보아 柯氏는 六經을 全身의 六個 區域으로 區別하여 有關한 臟腑, 肌表, 經絡, 組織, 苗竅 등을 有機的으로 聯關시켜 認識하며 經絡에만 局限되지는 않았으며 經絡은 六經의 脈이 흐르는 通路로 認識했음을 알 수 있고 六經으로 傷寒, 雜病 등 모든 疾病을 治療할 수 있으며, 또한 百病을 治療하는데 六經辨證이 始發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認識은 《傷寒論》 六經病症의 解釋에 있어서 一大 學說로 成立되었다.

#### 4) 尤怡

尤怡의 字는 在涇이고, 號는 拙吾며 江蘇 長洲人이다. 大略 徐靈胎와 同時人이며 學은 喻昌을 爲宗했고, 著書로는 傷寒論을 註解한 《傷寒貫珠集》八卷, 《金匱要略心典》 및 《金匱翼》 등이 있다.

尤怡는 六經에 대하여 認識하기를 《傷寒貫珠集·太陽篇》에 이르기를 “사람의 十二經絡은 本來 서로 通해 있으며 各各 經界가 있으니, 이 때문에 邪氣를 받게 되면 各各 보이는 바의 症狀과 脈이 있게 되는 것이다. 仲景이 太陽脈篇의 症狀

28) 柯琴 傷寒來蘇集 傷寒論註 p.1

29) 柯琴 傷寒來蘇集 中 傷寒論翼 p.2

30) 柯琴 傷寒來蘇集 中 傷寒論翼 全論大法 p.2

31) 柯琴 傷寒來蘇集中 傷寒論翼 全論大法 p.2

을 脈浮, 頭項強痛, 惡寒이라고 하였다. 무릇 太陽은 三陽의 表에 있으며, 그 脈은 이마로 올라가서 정수리에서 交叉하며 腦로 入絡하여 項으로 다시 갈라져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 初病은 中風과 傷寒을 莫論하고 그 脈은 이와 같다.”<sup>32)</sup>라고 하였으며 尤怡는 여기에서 經絡의 學說로 說明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太陽의 綱領은 이와 같으나 陽明條의 밑에는 口乾, 惡熱의 文章이 없다. 少陽證中에는 寒熱往來의 條目이 없고 少陰에는 欲寐만 있고 太陽, 厥陰에는 臟病을 많이 이야기하였으니, 學者는 마땅히 他條를 參考할 것이니 하나에만 執着해서는 안된다.”<sup>33)</sup>라고 하여 六經提綱은 全面的인 것이 아니고, 일찌기 이러한 說이 있었으니, 全體的인 觀點에서 이 主張을 보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 5) 陳念祖

陳念祖의 字는 修園이며, 福建 長樂人이다. 그의 著書로는 《南雅堂醫書》十五種이 있으니 《神農本草經讀》六卷, 《靈素集註節要》十二卷, 《傷寒論淺註》六卷, 《傷寒醫訣淺解》六卷, 《傷寒眞方歌括》六卷, 《長沙方歌括》六卷, 《金匱要略淺註》十卷, 《金匱方歌括》六卷, 《醫學從衆錄》八卷, 《時方歌括》二卷, 《時方妙用》四卷, 《醫學實在易》八卷, 《醫學三字經》四卷, 《女科要旨》四卷, 《景岳新方疏》四卷이다. 陳氏 醫學思想의 特徵은 徐靈胎와 비슷하여 復古 思想이 매우 두드러진다.

陳念祖는 傷寒六經과 《內經·熱論》은 같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傷寒 六經이 百病을 統率한다고 認識하였다.

① 陳念祖는 《傷寒》의 六經과 《熱論》은 같지 않다고 認識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認識하기를 《傷寒論》의 六經은 바로 《內經》中の 六經이라고 認識하고 있으나 陳修園은 《讀法》中에서 말하기를 “仲景《傷寒論》의 六經과 《內經·熱病論》의 六經은 마땅히 區分되어야 하는 것이나 王叔和는 《熱病論》의 文章을 “序例”로서 《傷寒論》의 머리에 두어서 論中の 뜻을 오히려 分明치 못하게 하였다.”<sup>34)</sup> 하여 두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② 《傷寒》의 六經이 百病을 統率한다고 認識.

陳念祖는 또 말하기를 “이 冊은 비록 傷寒을 論하고 있지만 百病이 그 中에 있다. 안으로는 臟腑, 밖으로는 形身, 그리고 血氣의 生始, 經俞의 會通, 神機의 出入, 陰陽의 變易, 六氣의 循環, 五運의 生制, 上下의 交合, 水火의 相濟, 寒熱虛實, 溫清補消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 바가 없으니 疾病이 아무리 많고

32) 尤在涇 傷寒貫珠集 pp.2~3

33) 上揭書 p.3

34) 陳修園 傷寒論淺註 p.8



治法이 아무리 多樣해도 모두 六經中에 있다.”<sup>35)</sup>라고 하였다.

六經은 經絡이 아니라 經界地面(則 解剖學的 位置)이라고 明代의 方有執으로부터 柯韻伯, 程郊倩 等이 모두 말하고 있다. 《讀法》에서는 程郊倩을 引用하여 말하기를 “經은 界를 말함이다. 經界가 이미 定해지면 彼此가 可히 分明해진다. 經은 오히려 常을 말하는 것이며 經常이 이미 定해지면 그 變化가 多端하더라도 六經으로써 表裏와 陰陽을 나눌 수 있다.”<sup>36)</sup>고 하여 무릇 虛實, 寒溫의 말미암음은 비록 한가지 病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經을 分明히 하고자 勞力한다면 自由自在로 統率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③ 六經은 提綱이며 全論을 參考해야 한다고 認識.

《讀法》에서 이르기를 “六經이 病이 될때 仲景은 各各 提綱을 定하였으니 太陽은 脈浮 頭痛 項強 惡寒의 八字로 提綱을 삼았다.”<sup>37)</sup>라고 하였고 또 이 提綱으로는 該當하는 經의 證을 說明하기에 不足하다고 하여 提示하기를 “提綱을 主로 삼고 論中에서 아울러 나타나는 證을 參考한다면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sup>38)</sup>라고 하여 六經은 提綱이며 全論을 參考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讀法》에서는 傳經을 機轉으로 認識하여 張令詒가 한 말을 引用하였는데 “傳經의 法則은 一日太陽,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厥陰으로 六氣가 이 順序로 相傳하며 周而復始하고 一定不移한데 이는 氣가 傳해지는 것이 病이 傳해지는 것이 아니다.”<sup>39)</sup>라고 하였고, “……正氣의 相傳하는 바는 스스로 定해진 時期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病邪가 相傳하는 것은 그 證을 따라서 治療할 것이며 日數에 拘碍될 必要가 없다.”라고 하여, 그 證을 따라서 治療를 하여야 日數에 拘碍될 必要가 없음을 強調하였다.

## 5. 六經과 六氣와의 關係

### 1) 六氣란 무엇인가?

六氣란 것은 地球의 運動過程에서 五行의 質에 變化를 일으켜서 運行之氣가 하나 더 불어나게 됨으로써 六種의 氣가 된 것인데 이것은 地球에만 있는 氣이다. 다시 말하면 五行이란 것은 虛空에 있는 五行星團이 各各 自己의 光을 發射하는 바 이 光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性質 그대로의 光인 것이다.

35) 上揭書 p.6

36) 上揭書 P.11

37) 陳修園 傷寒論淺註 P.12

38) 上揭書 P.13

39) 上揭書 P.13

宇宙間에는 이 氣運들이 彌滿하고 있는데 이 氣運이 運動을 始作하면 五運으로 變化하는 것이다. 그러나 五運의 氣化作用이 地球 周圍에 集中하게 되면 地球에서는 이것이 六氣로 變化하는 것이다.

그런데 原天之氣(五行)가 地球 周圍에 集中이 되고 또 그것이 變化하여서 六氣를 이루는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 地球는 坤(☷)의 象으로 되어 있어 中이 虛하기 때문에 萬物(五行氣)을 全部 包容할 수 있는 德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地球는 그 回轉軸이 23度7分 可量 傾斜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無根之火인 相火라는 새로운 불(火)이 하나 더 불어나게 되어서 五運과 相火가 合하여 六氣로서 나타난 것이다.<sup>40)</sup>

여기서 五運과 六氣의 差異點을 살펴보면 五運은 天氣로 하늘에서 作用하는 無形의 造化氣運이고(生만 이룸), 六氣는 地氣로서 五運이 地球에서 現實化되어 作用하는 具體的인 氣運(成을 이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宇宙의 모든 變化는 五運과 六氣의 勝負作用에 依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天地運動이라고 하니 이는 곧 五六의 運動이며 干支變化의 運動인 것이다.

六氣는 風·寒·暑·濕·燥·火의 簡稱이다. 六氣中에서 暑氣와 火氣는 基本的으로 同類이나 그 作用과 役割이 다르므로 風·寒·暑·濕·燥·火라 하지 않고 風·寒·濕·燥·君火·相火라 부른다. 風·寒·濕·燥·君火·相火 等 六種의 氣候變化는 基本的으로 一年四季 陰陽消長進退의 變化로부터 派生되어 나온다. 따라서 六氣는 一般的인 變化和 特殊的인 變化를 說明하고 推算한다. 每年의 六氣는 普通 主氣와 客氣로 區分하는데 主氣로는 六化之常을 把握하고 客氣로는 六化之變을 把握한다. 또 客氣와 主氣가 相合한 것을 客主加臨이라 稱하는데 氣候의 複雜한 變化를 進一步하여 把握할 수 있다.

## 2) 十二支의 六氣三陰三陽配屬

《素問·天元紀大論》에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卯酉之歲 上見陽明, 辰戌之歲 上見太陽, 巳亥之歲 上見厥陰, 少陰所謂標也 厥陰所謂終也,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sup>41)</sup>라 하였고 《五運行大論》에서는 “子午之上 少陰主之, 丑未之上 太陰主之, 寅申之上 少陽主之, 卯酉之上 陽明主之, 辰戌之上 太陽主之, 巳亥之上 厥陰主之”<sup>42)</sup>라 하였다. 여기서 上은

40)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76 p.89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p.128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p.129

當年の 司天之氣를 指摘한 말이며 “厥陰之上 風氣主之”의 句는 “巳亥之歲 上見厥陰”이나 “巳亥之上 厥陰主之”의 內容과 結合되어 年支上에 있어서 巳亥가 든 해는 厥陰風木이 司天하여 이 해의 氣候變化는 風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子午年에는 少陰君火之氣가 支配를 하고 丑未年에는 太陰濕土之氣가 支配를 하며 辰戌年에는 太陽寒水之氣가 支配한다는 뜻이 된다. 이는 地支에 六氣와 三陰三陽을 配合하여 紀年の 地支에 根據하여 氣候의 變化와 人體에 關한 影響을 研究하는 標準이 되는 것이다. 十二支에 六氣와 三陰三陽을 配合하여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地 支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
三陰三陽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六 氣	君火	濕土	相火	燥金	寒水	風木

<十二支配六氣表>

이렇게 配合되는 簡端한 理論하나를 紹介하면, 十二地支의 前六支는 陽에 屬하고 剛에 屬하며 後六支는 陰에 屬하고 柔에 屬한다. 그리하여 이들의 前後를 配合하면 또한 陰陽的으로 結合되어 子午, 丑未, 寅申, 卯酉, 巳亥의 六對를 形成한다. 이러한 然後에 五行相生의 次序로 이들을 排列하면 곧 上述한 相配情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配合되는 所以然에 對한 具體的인 內容은 六氣의 十二支化氣와 三陰三陽條에서 論하였다.

### 3) 三陰三陽의 概念

《素問·陰陽離合論》에서 陰陽의 本質은 可離可合할 수 있어 合하면 一陰一陽이 되고 離하면 三陰三陽으로 될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陰과 陽이 모두 自體가 含有하고 있는 陰陽氣의 多少에 따라 各各 셋으로 나누어 질 때 陰의 셋이 三陰이 되고 陽의 셋이 三陽이 됨을 說明한 말이다.

三陰中에서 厥陰이 陰氣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은 少陰이고 太陰은 陰氣가 가장 旺盛하므로 《素問·陰陽類論》에서는 厥陰을 一陰이라 부르고 少陰을 二陰이라 부르고 太陰을 三陰이라고 呼稱하였다. 陽도 마찬가지로 三陽中에서 少陽이 陽氣가 가장 적고 陽明이 그 다음이고 太陽은 陽氣가 旺盛하므로 《陰陽類論》에서는 少陽을 一陽이라 하고 陽明을 二陽이라 하고 太陽을 三陽이라고 呼稱하였다. 이는 《素問·天元紀大論》에서 말한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 三陰三陽也”<sup>43)</sup>의

내용과 符合한다.

三陰三陽의 陰陽之氣는 多少가 不同하므로 이 三陰三陽을 가지고 氣候와 物候와 病候를 表現할 때도 各各 不同하게 된다. 氣候面에 있어 厥陰은 風과 溫을 代表하고, 少陰은 熱을 代表하고, 少陽은 火를 代表하고, 太陰은 濕을 代表하고, 陽明은 燥와 涼을 代表하고, 太陽은 寒을 代表한다. 物候面에 있어 厥陰은 木과 生을 代表하고, 少陰과 少陽은 火와 長을 代表하고, 太陰은 土와 化를 代表하고, 陽明은 金과 收를 代表하고, 太陽은 水와 藏을 代表한다. 病候面에 있어 厥陰은 肝을 代表하고, 少陰과 少陽은 心을 代表하고, 太陰은 脾를 代表하고, 陽明은 肺를 代表하고, 太陽은 腎을 代表한다. 風火濕燥寒, 木火土金水, 生長化收藏, 肝心脾肺腎 등은 陰陽之氣의 多少가 不同함으로 그들 各自의 作用도 서로 같지 않게 되는 것이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願聞陰陽之三也 何謂 岐伯曰氣有多少 異用也”<sup>44)</sup>라 하였으니 이도 역시 陰陽之氣의 不同한 差異에 의해 作用도 不同하게 됨을 說明한 것이다.

太極이 一次分化하여 陰陽이 되고 陰陽이 다시 分化하여 陽中之陽인 太陽(心), 陽中之陰인 少陰(肺), 陰中之陽인 少陽(肝), 陰中之陰인 太陰(腎)의 四象으로 分離되는 것은 쉽게 이해 될 수 있으나 陽明과 厥陰에 관한 事項은 他書에서 言及이 적고 諸說이 紛紜하므로 이 둘에 對하여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陽明何謂 曰兩陽合明也”<sup>45)</sup>라 하였다. 그러나 兩陽合明에 對한 歷代注家의 解釋이 一致하지 않고 있다.

첫째의 解釋은 《靈樞·陰陽繫日月篇》의 內容에 根據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르기 “寅者 正月之生陽也 主左足之少陽 未者六月 主右足之少陽 卯者二月 主左足之太陽 午者五月 主右足之太陽 辰者三月 主左足之陽明 巳者四月 主右足之陽明 此兩陽合于前 故曰陽明”<sup>46)</sup>이라 하였다. 이는 每年 上半年의 各月은 陰陽屬性에서 모두 陽에 屬하고 人體의 經脈과 結合시킬 때 三陽經脈과 有關함을 說明한 것이다. 이 中 正月과 六月은 少陽과 連關되고 二月과 五月은 太陽과 連關되고 三月과 四月은 陽明과 連關된다. 以上에서 볼 때 少陽과 太陽은 모두 서로 달을 隔하고 있으나 오직 陽明만은 이와 달리 三月은 左足之陽明을 主管하고 四月은 右足之陽明을 主管하여 서로 이웃하므로 “兩陽合明”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 解釋은 壬水를 代表로 하는데 그는 注에서 “靈樞繫日月論曰 辰者三月 主左足之陽明

43) 洪元植 前掲書 p.127

44) 上同 p.185

45) 上同 p.85

46) 上同 p.279

巳者四月 主右足之陽明 兩陽合于前 故曰 陽明也”<sup>47)</sup>라 하였다. 그러나 《陰陽繫日月篇》의 이 內容은 鍼刺과 달의 相關關係를 말한 것으로 正月, 二月, 三月에는 人氣在左하니 左足之陽에 刺鍼하지 말고 四月, 五月, 六月에는 人氣在右하니 右足之陽에 刺鍼하지 말라는 뜻으로 “陰陽之三”, “氣有多少異用也” 등의 內容과는 區別해야 할 것이다.

둘째의 解釋은 “兩陽合明”을 陽氣가 가장 旺盛하다고 보는 見解이다. 이는 張介賓과 張志聰이 代表인데 張介賓은 “兩陽合明 陽之盛也”<sup>48)</sup> 張隱庵은 “夫陽明主陽盛之氣 故多氣而多血也”<sup>49)</sup>라 하였다.

셋째의 解釋은 “兩陽合明”을 陽明이 太陽과 少陽의 中間에 位置한다고 보는 見解인데 高士宗이 代表이다. 高士宗은 《素問直解》의 注에서 “有少陽之陽 有太陽之陽 兩陽相合而明 則中有陽明也”<sup>50)</sup>라 하였다. 以上の 內容을 綜合해 볼 때 一陽, 二陽, 三陽의 概念으로부터 “兩陽合明”을 解釋한 高士宗의 解釋이 《內經》에서 三陰三陽을 區分한 精神과 符合함을 確認할 수 있다.

또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時氣와 藏象을 通해 陽明의 名義에 對하여 “金者居西方兌 在人主肺 肺爲華蓋 雖陰藏 居膈上處 陽之位 金必待陽 而後發 故屬陽明也”<sup>51)</sup>라 하였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厥陰何也 曰兩陰交盡也”<sup>52)</sup>라 하였다. 이 兩陰交盡에 對한 注釋도 역시 一致하지 않고 있다.

첫번째 解釋은 《靈樞·陰陽繫日月篇》에 根據하고 있다. 《靈樞·陰陽繫日月篇》에서 “申者 七月之生陰也 主右足之少陰 丑者十二月 主左足之少陰 酉者八月 主右足之太陰 子者十一月 主左足之太陰 戌者九月 主右足之厥陰 亥者十月 主左足之厥陰 此兩陰交盡 故曰厥陰”<sup>53)</sup>이라 하였다. 이는 每年 下半年의 各月은 陰陽屬性에서 모두 陰에 屬하고 人體의 經脈과 結合시킬 때 三陽經脈과 有關함을 說明한 것이다. 이 中 七月과 十二月은 少陰과 聯關되고 八月과 十一月은 太陰과 聯關되고 九月과 十月은 厥陰과 聯關된다. 以上에서 볼 때 少陰과 太陰은 모두 서로 달을 隔하고 있으나 오직 厥陰만은 이와 달리 九月은 右足之厥陰을 主管하고 十月은 左足之厥陰을 主管하여 서로 이웃하므로 “兩陰交盡”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이

47) 白允基譯 黃帝內經運氣解釋 서울 高文社 1975 p.261

48) 張介賓 類經 p.979

49) 張隱庵 張馬合註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75

50)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673

51) 松下見林 運氣論奧疏四卷之五 p.34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p.185

53) 上同 p.279

解釋은 王水을 代表로 하는데 그는 注에서 “靈樞繫日月論曰 戌者九月 主右足之厥陰 亥者十月 主左足之厥陰 兩陰交盡 故曰厥陰也”<sup>54)</sup>라 하였다. 그러나 《陰陽繫日月篇》의 이 內容은 鍼刺와 달의 相關關係를 말한 것으로 七月, 八月, 九月에는 人氣在右하니 右足之陰에 刺鍼하지 말고 十月, 十一月, 十二月에는 人氣在左하니 左足之陰에 刺鍼하지 말라는 뜻으로 역시 “陰陽之三”, “氣有多少 異用也” 등의 內容과는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의 解釋은 “兩陰交盡”을 陰氣가 가장 旺盛하다고 보는 見解이다. 이 解釋은 張介賓이 代表的인데 그는 注에서 “厥 盡也 兩陰交盡 陰之極也”<sup>55)</sup>라 하였다.

세번째의 解釋은 “兩陰交盡”을 厥陰이 太陰과 少陰의 뒤에 位置한다고 보는 見解인데 高士宗이 代表的이다. 高士宗은 《素問直解》의 注에서 “從少而太 則中有陽明 由太而少 則終有厥陰 有太陰之陰 有少陰之陰 兩陰交盡而有厥陰也”<sup>56)</sup>라 하였다.

以上の 內容을 綜合해 볼 때 이 厥陰에 對한 內容도 前述한 “兩陽合明”의 內容과 同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高士宗의 解釋이 妥當하다고 보여진다. 또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時氣와 藏象을 通해 厥陰의 名義에 對하여 “木者 位居東方震 在人主於肝 肝者 陰未退 干之而出 雖陽藏 居 屬下處 陰之位 木必待陰 而後生 故屬厥陰也”<sup>57)</sup>

그리고 《靈海集》에서는 三陰三陽에 對해 “六氣布於地支 而陽有太陽陽明少陽 陰有太陰少陰厥陰 然陽曰陽明 陰曰厥陰 蓋以循行差次 而立義緣 陽明居於太少之間 故爲陽明 乃二陽相交 以爲陽 厥陰 居於太少之後 故爲厥陰 厥者 極盡之謂也”<sup>58)</sup>라 하고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論標本條》에서 “太陰濕土 少陽相火 爲標本同 至於少陰君火 太陽寒水 則陰陽寒熱互相不同 義從何來 豈不知出於自然 而非人意之所能名邪 古今之論陽則順行 又以進爲盛 自先太陽而後少陽也 陰則逆行 又以退爲盛 自先少陰而後太陰也 此易爻卜筮之所同 是以君火司於午 午者 一陰生之位 火本熱而其氣當陰生之初 故標本異 而君火屬少陰也 水居北方子 而子者 一陽生之位 水本寒 而其氣當陽生之初 故標本異 而寒水屬太陽也 土者 乃西南維未之位 應於長夏之月 未乃午之次 故土曰太陰也 相火者 司於寅 寅乃丑之次 故相火曰少陽也”<sup>59)</sup>라 하여 三陰三陽標本の 同不同과 三陰三陽의 名義를 밝히고 있다.

54) 白允基譯 前掲書 p.261

55) 張介賓 類經 p.979

56)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p.673

57) 松下見林 氣論奧疏四卷之五 p.32

58) 上同 p.35

4) 三陰三陽의 月別配屬

《內經·素問·脈解篇》에서 “正月 太陽寅 寅太陽也 正月陽氣出 在上而陰氣盛 陽未得自次也 …… 少陽盛(戌의 誤)也 盛(戌)者 心之所表也 九月陽氣盡 而陰氣盛 …… 陽明子午也 五月盛陽之陰也 陽盛而陰氣加之 …… 太陰子也 十一月萬物皆藏於中 …… 少陰者 腎也 十月萬物陽氣皆傷 …… 厥陰者 辰也 三月陽中之陰”<sup>60)</sup>이라 하였다.

《脈解篇》의 主要內容은 自然의 氣候變化에 따르는 陰陽의 偏盛偏衰로 말미암아 三陰三陽經脈에서 發生하는 經脈의 病을 解釋한 것인데 太陽을 正月(寅月), 陽明을 五月(午月), 少陽을 九月(戌月), 厥陰을 三月(辰月), 少陰을 十月(亥月), 太陰을 十一月(子月)에 配合하여 自然界의 陰陽變化를 把握한 것이 特徵을 이룬다. 이렇게 配合된 理由에 對해 《醫學輯要(II)》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sup>61)</sup>

“太陽은 正月을 主하니 正月은 春의 初頭로 陽이 始作되어서 三春에 陽이 胎動해서 三夏에 陽이 大盛하고 三秋에 陽이 威力을 거두므로 期間이 第一 길고 陽의 勢力이 第一 커서 太陽이라 하고 一名 巨陽이라 한다.

陽明은 五月을 主하니 五月은 夏의 中間으로 晝間이 가장 길고 熱이 最高로 높아서 陽明이라 하니 晝間은 明하고 熱은 陽에서 生하므로 陽明이라 하고 또 太陽과 少陽의 中間에 있어서 太陽의 陽과 少陽의 陽이 兩側에서 反射하므로 陽明이라 한다. 또 五月에는 草木이 바야흐로 茂盛하는 途中에 있어서 津液이 充滿해서 나무끝까지 물이 올라가서 겉으로 흘러 나옴을 볼 수 있고 사람은 晝間에 는 땀을 흘리기 始作한다.

少陽은 九月을 主하니 三秋의 마지막 달로 陽氣는 이 달을 最後로 힘을 거두게 되고 寒氣가 陽氣보다 强해서 昆蟲이 모두 地下로 들어가서 蟄伏을 準備하고 候鳥는 移動해서 南方으로 갈 것은 벌써 그림자가 없고 北方에서 올 것은 아직 드물게 보이는 때이다. 草木은 津液이 말라서 黃葉과 紅葉이 交錯하고 綠葉은 別로 없고 野草의 軟弱한 것은 시들고 오직 陽地쪽에 있는 種類만이 前日 綠色의 形容을 維持할 뿐이고 澗水는 맑아서 밑바닥이 보이고 濕地는 말라서 먼지가 나고 雨期에 가득찬던 泉水는 자취가 없다. 天은 맑아서 구름 한 점 없고 日光은 濕이 없어서 直射하므로 별살이 夏節보다 더 따갑고 바람은 차서 肅琴하게 불어 올 때마다 落葉이 땅으로 굴러 내림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點을 간추려 보면 九月은 陽의 季節이나 陰이 多하고 陽이 少하므로 少陽이라 한다.

59) 上同 pp.17~19

60) 洪元植 前書 p.98

61) 宋點植 醫學輯要(II) 大田大學 韓醫學科生理學教室 1986 pp.91~93

厥陰은 三月을 主하니 三春의 마지막 달로 陰은 거의 다 없어지고 陽의 全盛時期에 들어 있으므로 厥陰이라 하니 厥의 뜻은 거의 다 되었다는 뜻이므로 厥陰은 陰이 거의 다 가버렸다는 뜻이다. 草木은 싹이 틀 것은 다 蘇生하고 蟄蟲도 나올 것은 다 나오고 候鳥도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고 草木의 津液은 한창 오르는 途中에 있어서 柔軟하고 天水는 자주 내려서 溪澗에는 流水가 豊富하고 口氣는 和暢해서 아지랑이가 많이 끼고 天에는 구름이 뭉쳐서 往來함을 볼 수 있다. 晝間은 길고 夜間은 짧아서 朝夕으로 寒氣가 들어오고 陰雲이甚하면 晝間에도 寒感이 들고 夜間에는 이불을 덮지 아니하면 추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의 寒氣가 生한다.

少陰은 十月을 主하니 三秋가 다 지나고 初冬이 닥쳐 왔으므로 溪川에는 얼음이 얼기 始作하고 野草도 말라서 불이 나게되고 落葉은 다 떨어져서 樹木은 엉성하고 떠나가는 候鳥는 그림자도 없고 돌아오는 候鳥는 벌써 자리를 잡아서 月夜에 기러기의 行列이 蒼空으로 지나감을 볼 수 있고 江과 湖水에는 물오리 때가 떠 다니고 蒼蒼한 孤松에는 鶴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少陰이라 함은 初秋를 聯想해서 하는 말이나 初秋는 陰이 始作됨을 意味한 말이고 六經을 들어서 한 말은 아니며 六經으로 十月이 少陰이 되는 것은 앞으로 十一月의 太陰이 있고 十月은 겨울이 始作되는 달이므로 작은 陰이라는 意味에서 少陰은 十月을 象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 것은 冬節에는 寒은 地表로 나오고 熱은 地中으로 들어가므로 十月初부터 벌써 井水가 溫해져서 우물가에는 얼음이 얼어도 井水는 溫하여 물을 부으면 얼음이 녹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少陰은 表寒內熱로 屬하는 熱이 潛伏해서 鬱이 되고 길에 寒이 盛해서 모든 物體가 寒의 現狀을 나타내게 된다.

太陰은 十一月을 主하니 三冬의 中月로 冬至가 이 달에 들어 있어서 一年中 晝가 第一 短하고 夜가 第一 長하므로 太陰이라 한 것이다. 冬至를 지나서 小寒과 大寒이 있어서 추위는 冬至때 보다 더하나 晝는 훨씬 길어지고 夜는 훨씬 短해서 太陰이 되지 못하니 陰陽은 晝夜의 長短을 基準으로 하고 寒熱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明白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夜에는 반드시 寒이 生하고 晝에는 반드시 熱이 生하므로 三陰에는 寒이 따르고 三陽에는 熱이 따름을 妄却해서 안된다. 이 달의 氣象을 觀察해 보면 모든 것이 荒涼하고 쓸쓸할 뿐이다. 原野를 바라보면 樹木은 잎이 하나도 없고 앙상해서 가지만 남아 있고 草野는 枯死해서 사이 사이로 들리던 蟲聲은 간데 없고 가끔 淒切한 北風의 怒규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고 行路에는 먼지만 일어나고 濕氣는 하나도 없고 澗水와 沼澤에는 얼음이 두텁게 얼어서 밟아도 꺼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積雪이 尺을 넘는 수



가 많다. 이러한 處地에 있으므로 特히 太陰을 至陰이라 하여서 더以上: 陰이 進行되지 아니하고 陰의 窮極地에 놓여져 있으므로 太陰月에 冬至가 들어 있어서 一陽이 生한다.”

그러나 여기서 少陰을 十月로 한데 對해서는 七月로 바꾸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少陰을 除外한 나머지가 모두 陽月에 配合되어 있고, 둘째로 三陽의 間隔이 모두 四個月씩 떨어져 있으며 三陰도 少陰을 七月로 옮기면 厥陰은 三月, 少陰은 七月, 太陰은 十一月이 되어 모두 四個月씩의 間隔으로 거리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素問·脈解篇》의 “少陰者腎也 十月萬物陽氣皆傷”<sup>62)</sup>이 《太素·卷八·經脈病解》에는 “少陰者腎也 七月萬物陽氣皆傷”<sup>63)</sup>이라 하였으며, 넷째의 理由는 少陰이 七月이 되어야만 《淮南子·時則訓》에서 말한 六合 “孟春與孟秋爲合 …… 季春與季秋爲合 …… 仲夏與仲冬爲合”<sup>64)</sup>의 原理와 相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季春과 季秋가 相合한다는 것은 三月의 厥陰과 九月의 少陽이 表裏配合를 이루며, 仲夏와 仲冬이 相合한다는 말은 五月의 陽明과 十一月의 太陰이 表裏配合를 이룬다는 것이니 따라서 孟春인 一月 太陽이 孟秋인 七月과 結合을 이룰때 七月이 少陰이 되어야만 太陽·少陰이 表裏關係가 成立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太素에 나와있는 三陰三陽에 대한 楊上善의 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十一月一陽生 十二月二陽生 正月三陽生 三陽生寅之時 其陽已大 故曰太陽也 …… 戌爲九月 九月陽少 故曰少陽也 …… 陽明三陽之長也 午爲五月 陽之盛也 在於陽明 故曰陽明 …… 以十一月陰氣大 故曰太陰 …… 七月秋氣始至 故曰少陰 十一月少陰之氣大 三月少陰之氣厥 故少至腎 七月之時 三陰已氣 萬物之陽氣衰 三月陰氣將盡 故曰厥陰”<sup>65)</sup>

#### 5) 十二地支와 三陰三陽

韓東錫은 五運은 象徵的인 概念에 不過하고 地支의 變化인 六氣가 成立된 以後부터 宇宙의 運動은 完全을 期할 수 있다고 하였다. 卽 그는 三陰三陽이라는 本中末과 始中終을 具備한 六氣의 運動이 成立한 後에라야 事物化生의 現實的인 變化運動이 成立한다고 主張하였는데 그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sup>66)</sup>

62) 洪元植 精黃帝內經 p.98

63) 楊上善 黃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87

64) 劉安 淮南子 李錫浩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4 p.95

65) 楊上善 黃內經太素 pp.84~88

66) 韓東錫 宇變化의 原理 pp.94~98

厥陰(巳亥)風木이라고 하는 말은 物이 生하려고 하지만 力不及하여서 生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厥字의 뜻은 其也·短也라고 하였다. 그런 卽 厥陰이란 것은 生하려고 하지만 그 氣運이 短하여서 아직 生할 수 없는 것을 厥陰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反面으로 厥字의 象을 살펴보면 從厂(굴바위업) 從朔(逆字의 古字) 從欠(기지개할흙·결핍할흙)하였은 卽 이것은 物이 나오려고 하지만, 卽 逆出하려고 하지만 굴바위 아래와 같은 凝固가甚한 곳에는 그 힘이 不及하므로 生할 수가 없는 것을 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厥字는 이와 같은 象을 取한 것이다.

그런데 厥陰의 概念을 이와같이 取한 것은 巳亥木의 性質이 위에서 말한 厥字의 象과 同一한데서 取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稽考해 보면 亥는 本是 六水였다. 六水속에서 木이 나오려고 하는 象을 보면 아직 堅固한 坎水의 内部에 있다. 木이 바로 亥木이므로 나오려는 뜻만 있고 그 氣가 不及하여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亥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亥木이 發芽하여서 漸漸 자라게 되면서 木氣의 特徵을 잃게 되는 그 무렵이 바로 巳木인 것이다.

그런데 巳의 數는 二(火)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면 木氣의 機能을 喪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厥陰을 巳亥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거나와 또한 風木이라고 하는 것은 木氣에는 動하는 象이 있으므로 이것에 風木이라는 名稱을 붙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少陰(子午)을 君火라고 한 것에 對해 研究해 보기로 하겠다. 君火라는 것은 少陰속에서 자라는 火다. 다시 말하면 君字는 從尹從口의 象을 取했으니 그것은 震巽의 뜻을 象徵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口”는 氣가 出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尹”는 治也라 하여 事物의 主動的 象態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卽 君이란 뜻은 主動力을 마음대로 驅使할 수 있는 實力있는 位가 바로 君位인데 이것을 地支에서 살펴보면 君火는 子位에서 午位에 이르는 사이의 火를 稱한 것이다. 子는 本是 水요 午는 火다. 그런 卽 子에서 午에 이르는 火는 實力은 充分하나 아직 그 猛威를 發하지 못하는 火다. 陰中の 火 卽 陰性이 아직 많이 作用하는 火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象이 바로 君火의 象이요 또한 少陰의 象인 卽 모두 巳亥에서 繼承하여서 活動하는 모습을 表示한 概念인 것이다. 그러므로 子午火는 子에서 出發할 때는 그 힘이 強하지만 午에 와서 火로서의 外形을 갖추게 되면 그 힘은 衰弱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은 太陰(丑未)濕土가 들어오는 바 太字의 뜻은 至極히 작으면서도 큰 것을 太라고 한다. 그러므로 太陰이나 太陽은 모두 그런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陰이 三段變化를 할 때에 厥陰은 亥에서 始作하므로 丑에 와야만 太陰만큼 자랄 것이다. 그런데 太陰은 厥陰이나 少陰에 比하여 더 前進한 位에 있는데 이것은 萬物이 現實的으로 陰을 生하는 基本點인 것이다. 왜냐

하면 物의 太少라는 것은 陰에서부터(形에서) 規程되는 것이다. 그런데 太陰은 三陰의 末端이면서 事實上的 形인 寅卯辰의 基本이다. 좀더 仔細히 말하면 三陰은 모두 亥子丑를 基本으로 하고 巳午未를 末로 하여서 形을 만든 것인데 亥子丑이 基本이란 것은 形의 準備段階이고 寅卯辰이 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太陰은 基本으로서의 末端이므로 이것이 바로 事實上으로 形이 生하는 基本點이다. 그런 卽 이와 같이 太陰은 形으로서 가장 작은 곳이며 同時에 가장 큰 곳이므로 太字의 象을 取하여서 太陰이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濕土라고 한 것은 濕은 本來 水와 火의 中間點이다. 조금만 더 凝固하면 水의 形體를 나타내지만 反面으로 조금만 더 分裂하면 火의 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卽 이것은 太陰이 그의 本인 丑에서 寅卯辰의 體를 거쳐서 巳午未의 末端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는 象인 卽 이것은 다시 말해서 丑에서 生한 形이 未에 와서 消滅되고 다시 有가 생기는 象을 濕土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丑未라고 하는 바 바뀌 말하면 太陰과 濕土라는 概念은 丑未의 補助概念에 不過한 것이다.

宇宙의 運動이란 것은 本是 陰陽運動이다. 陰陽에는 三陰과 三陽이 있는 것인 卽 厥陰·少陰·太陰이 끝난다는 말은 바로 三陰運動이 다 끝난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더 有意하여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方位로 볼 때 分明히 東南의 物生運動하는 過程이었다. 그런 卽 그것은 陽生運動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三陰運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는 點이다.

東南에서 陽運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本質에 對한 觀察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陰運動을 한 것은 그의 作用面을 論한 것이다. 그런 卽 事物을 說明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體用으로서 論함이 옳은 方法이므로 六氣의 概念을 設定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二面性을 띠게 좀더 풀어서 말하면 三陰은 다 陰으로서 表示하면서 그 內容은 陽인 木의 風木·君火·濕土로서 그의 反對面을 表示한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하면 變化는 반드시 現象面과 內容面이 서로 相反된 象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讀者는 六氣의 概念을 보고 宇宙의 本質과 現象을 把握하는 工夫를 해야하며 또한 生長面에서 陰(三陰)概念이 作用하는 것은 物의 生長은 陰的인 現象을 나타내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이와 같이 概念을 設定하였다는 것은 留意하여야만 할 것이다.

다음은 少陽相火가 들어오게 되는데 相火는 寅에서 始作하여서 君火와 濕土를 거쳐서 申에 이르러 完成되는 것이다. 그런데 君火는 實力은 있지만 外勢는 弱하였는데 相火에 이르게 되면 實力은 弱化되었지만 外勢는 가장 旺盛한 火로 變하

는 것이다. 그런데 少陽의 概念을 만들때에 少字를 取한 것은 少는 아직 젊다는 뜻이다. 天道는 三陰過程에서 陽을 全部 發散하였은 卽 三陽過程에서는 다시 綜合하여야 할 것인 卽 少陽은 綜合하는 最初의 段階이므로 少字를 놓은 것이며 이것은 바로 陽의 創造過程을 標準으로 하고 少陽이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相火란 것은 君火를 도와주는 火란 뜻이다. 君火를 돕는다는 말은 君火는 發散을 爲主로 하는 火인 卽 綜合만이 그의 補助가 되는 것이므로 天道는 相火로써 君火의 補助作用을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人君을 돕는 正丞(相)의 役割이 人君의 放蕩을 諫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卽 少陽과 相火라는 概念은 바로 寅申의 補助概念인 것이다. 寅申은 寅에서부터 申의 사이에서 이루어져 少陽作用과 相火作用을 하기 위한 存在인 것이다.

다음은 陽明燥金이 들어오게 되는데 陽明이란 것은 日月이 合하여 明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素問》에 이것을 “兩陽合明曰陽明”이라고 말한 것이다. 좀더 仔細하게 말하면 太陽은 一陽이고 少陽은 三陽인데 그 두개의 陽이 合하면 明을 이루는 法이다. 그러므로 兩陽이 合해서 明을 이룬 것을 陽明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燥金이라고 한 것은 天地의 氣는 未에서는 濕이 生하고 申에서는 濕의 收斂이 始作되고 酉에서는 完全히 燥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陽明은 物質面에서 보면 收斂하여서 燥하게 하는데 不過하지만 精神面에서 보면 邪慾과 邪惡의 發動을 버리고 精神을 收斂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明이 生하는 것이다.

그것은 氣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假令 六七月의 하늘은 氣壓이 낮고 八九月의 하늘이 높은 것은 바로 陽明燥金이 生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런 卽 陽明이나 燥金이라는 概念은 모두 酉金의 補助概念에 不過한 것이다.

그 다음은 太陽寒水의 次例다. 그런데 太陽이란 말은 本體面에서 가장 작은 陽이지만 現象面에서 보면 가장 큰 陽이라는 意味이다. 다시 말하면 辰戌은 水이나 東南方인 辰의 때에서 본 卽 辰은 물이 아니라 가장 큰 陽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太陽이란 것은 가장 큰 陽으로 보이지만 事實은 辰水의 作用 卽 水가 最大分裂을 일으킨 것이다. 戌이란 것은 西北方に 있는 水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上 辰의 큰 陽이 收縮되어서 戌에 와서 陽이 最深部에 伏藏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고 事實은 그 實力이 가장 큰 陽인 것이다. 그러므로 太陽이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寒水라고 하는 것은 水는 그 本性이 凝固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水가 辰에 이르면 그 象이 비록 가장 큰 陽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本性은 寒水 卽 凝固하는 水라는 것을 表現한 것이다.

## 6) 標本中氣의 應病規律

六氣의 本氣와 標氣가 不同함에 따라 疾病을 發生시키는 規律과 表現이 各기 다르다.

《素問·至眞要大論》에 “帝曰 六氣標本, 所從不同奈何? 岐伯曰 氣有從本者, 有從標本者, 有不從標本者也.” “帝曰 願卒聞之 岐伯曰 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從本從標,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也. 故從本者化生於本, 從標本者有標本之化, 從中者以中氣爲化也”<sup>67)</sup>라 하였다.

少陽太陰從本이라는 말은 少陽은 곧 相火로 陰陽屬性으로 볼 때 本인 火와 標인 少陽이 모두 陽에 屬하여 서로 一致한다. 다시 말해 少陽은 現象과 本質이 一致한다. 따라서 少陽이 일으키는 病은 火熱이 主가 되니 이를 少陽從本이라 한 것이다.

또 太陰은 곧 濕土로 陰陽屬性으로 볼 때 本인 濕과 標인 太陰이 모두 陰에 屬하여 現象과 本質이 一致한다. 따라서 太陰이 일으키는 病은 濕이 主가 되니 이를 太陰從本이라 한 것이니 水流濕 火就燥의 原理이다.

다음 少陽太陽從本從標에 對해 살펴보면 少陰은 君火가 되니 少陰은 標가 되고 君火가 本이 된다. 또 太陽은 寒水가 되니 太陽이 標가 되고 寒水가 本이 된다. 이들의 陰陽屬性을 살펴보면 少陰은 陰이 되고 君火는 陽이 되며 太陽은 陽이 되고 寒水는 陰이 되어 本과 標의 陰陽屬性이 不一致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標와 本의 病情이 모두 나타나니 이를 少陰太陽從本從標라 한 것이다.

끝으로,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에 對해 살펴보면 陽明은 燥金이니 陽明이 標가 되고 燥金이 本이 된다. 또 厥陰은 風木이니 厥陰이 標가 되고 風木이 本이 되어 둘 다 本과 標의 陰陽屬性이 一致하지 않는다. 여기서 中은 中見之氣로 標와 表裏의 關係에 있으며 本氣中에 나타날 수 있는 氣이다.

여기서 陽明의 中見之氣는 太陰이고 厥陰의 中見之氣는 少陽이 된다. 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의 意味는 厥陰이 비록 風과 溫에 屬하나 六氣轉化의 立場에서 볼 때 溫이 熱로 轉化할 수 있고 風이 火로 轉化할 수 있는 狀況을 반드시 考慮해야만 한다.

또 陽明이 비록 陽과 燥에 屬하나 六氣轉化의 立場에서 반드시 涼이 寒으로 轉化하고 燥가 濕으로 轉化할 수 있는 狀況을 考慮해야 한다.

溫이 極度에 이르면 熱로 變하고 또 厥陰의 溫에 初之氣는 반드시 熱한 二之氣로 轉化된다. 그런데 厥陰의 中氣가 少陽이고 少陽은 火熱을 主管하므로 厥陰은 中氣인 少陽을 쫓아 病理變化를 일으키게 된다.

67) 洪元植 精黃帝內經 p.186

또 燥의 對立되는 氣는 濕이고 또 太陰의 濕한 四之氣는 陽明의 燥한 五之氣로 轉化되듯이 둘 사이에도 서로 密接한 關係가 있다. 따라서 陽明의 中氣는 太陰이고 太陰은 濕을 主管하므로 陽明은 中氣인 太陰을 좃아 病理變化를 일으키게 된다.<sup>68)</sup>

#### 7) 三陰三陽과 開闔樞의 關係

韓醫學에서 重要な 核心이 되는 三陰三陽과 開闔樞에 對하여 要約을 하면 太極이 分하여 兩儀가 되고 兩儀가 分하여 四象이 된 것이므로 四象이라는 것은 陽儀의 一과 陰儀의 一이 각각 二象씩으로 된 것이요, 三陰三陽이라는 것은 이 陽儀의 太少二陽과 陰儀의 太少二陰이 각각 三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陽象의 太少二陽이 太中少의 意味로 太陽 陽明 少陽이 되고 陰象의 太少二陰이 역시 太中少의 意味로 太陰 少陰 厥陰으로 되어 각각 太中少의 三象이 된 것이므로 이 四象이 分하여 六象이 된 것이 곧 三陰과 三陽인 것이나 三陰三陽은 또한 四象內에서 六象이 生한 意味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 開闔樞를 다시 要約하면 太陽과 太陰이 開가 된다는 것은 太陽이 表에 在하여 陽氣를 敷布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陽氣의 極處이므로 곧 開達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皮毛는 手太陰의 肺金에 屬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陽極生陰의 理致에서 陰을 開하여 下降을 生하기도 하는 것이요, 太陰脾는 中에 居하여 스스로 陰의 盛함을 調節하려는 作用이 있게 되어 陰氣를 全身으로 敷布하니 이것이 脾가 血을 統함인 것이요 이곳의 血裏에서 精을 生하므로 또한 陰極生陽의 機能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를 脾胃의 元陽이라 하는 것이요, 氣化促進에 作用하는 인슈린이나 胰藏液 等の 作用이 發現함이 곧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少陽과 少陰이 樞가 된다는 것은 少陽은 半表半裏의 部位에서 出入의 轉樞機能을 發揮하기 때문이고, 少陰은 水火上下의 部位에서 下降이 다시 上昇하고 上昇이 다시 下降하는 것이 또한 곧 轉樞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리고 陽明과 厥陰이 闔이 된다고 하는 것은 陽明胃는 水穀의 汁인 津液을 氣로 化하고 이 氣의 生産이 곧 氣旺生血의 機轉으로 耗散되지 않도록 完수히 吸收하여 同化케 함과 아울러 또한 陽分의 裏에 居하기 때문에 이것을 闔이라 하는 것이요, 厥陰은 陰盡陽生체에서 그 充滿된 陰血에 依하여 陽氣가 生하는 것임과 아울러 또한 血分의 裏에 居하기 때문에 이를 闔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68) 方葯中 許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491~492

그리고 이를 河圖의 理致로써 說明한다면 上은 中에 該當하기 때문에 陽明의 闔이라는 것은 木火發散에서의 中和力인 것이므로 곧 耗散을 덜되게 하는 收斂機能과 같음이 闔이라는 意味인 것이고, 太陰의 開라는 것은 金水 收斂에서의 中和力인 것이므로 곧 그 陰性을 放出하여 積滯하지 않게 하는 發散機能과 같음이 開가 되는 意味인 것이다. 그러므로 陰血을 敷布함이 또한 陽을 生하는 機能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厥陰은 半가의 位置에서 陰盡陽生을 하기 때문에 그 陰極에서 陽을 生하려고 血을 充滿하게하는 것이 곧 闔이 되는 것이고, 少陽은 半表半裏의 位置에서 出入을 司하기 때문에 樞가 되는 것이며, 少陰은 陰極에서 陽을 生함과 陽極에서 陰을 生하며 下가 上으로 上이 下로 轉換이 되기 때문에 또한 樞가 되는 것이요, 太陽은 氣化의 極이 皮毛에 在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開가 되는 것이요 이곳의 皮毛가 또한 太陰肺金에 屬하여 陰을 開하여 下降이 始作되기도 하는 것이라 하겠다.<sup>69)</sup>

#### 8) 六氣의 主함과 六經의 治法

《天元紀大論》에서 말하기를 “厥陰의 上에는 風氣가 主하고 少陰의 上에는 熱氣가 主하며 太陰의 上에는 濕氣가 主하고 少陽의 上에는 相火가 主하며 陽明의 上에는 燥氣가 主하고 太陽의 上에는 寒氣가 主한다.” 하였으니 이와같이 自然界의 六氣가 變化함에 따라서 人身은 小天地이므로 역시 이 五運과 六氣의 感應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五臟六腑에 屬한 六經의 機能도 그와 一致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六微旨大論에서도 “少陽의 上에는 火氣를 治하고 陽明의 上에는 燥氣를 治하며 太陰의 上에는 寒氣를 治하고 厥陰의 上에는 風氣를 治하며 少陰의 上에는 熱氣를 治하고 太陰의 上에는 濕氣를 治한다.” 한 것이니, 이는 六氣의 變化에 應하여 人體에도 그에 따르는 病이 發生하는 것이므로 六氣의 主함을 因하여 人體의 六經病도 그와 같이 治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人體의 機能이 自然과 合流되어 發揮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70)</sup>

69) 李正來 醫要諦眞詮卷一 p.310

70) 上揭書 p.311

### III. 結 論

위에서 著者는 《傷寒論》의 “六經”解釋에 關하여 “六經”을 《內經·熱論》으로 認識한 龐安時, 成無己와, 이와는 反對로 《內經》과는 같지 않다고 主張한 陳言, 그리고 “經絡”으로 分經을 論한 朱肱, “六經”은 經絡의 經과는 같지 않으며 “六部”라고한 方有執, 氣化로 “六經”을 論述하여 傷寒 三陽三陰病을 六經 氣化의 病이요, 經絡의 本身病이 아니라고 主張한 張志聰, “六經”全身의 六個 區域으로 區分하여 六經地面說을 主張한 柯琴 等 “六經”解釋을 달리한 여러 學者의 生涯와 그의 思想을 整理하는 過程에서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朱肱의 傷寒論 研究의 特徵은 經絡으로써 三陰三陽의 病症의 發生, 傳變, 病位, 病理機轉을 論하고 陰陽表裏를 들어 辨證의 大綱을 삼은 것이다.

2. 龐安時와 成無己는 “六經”을 《內經·熱論》의 《經》을 引用하여 《傷寒論》을 解釋하였다.

3. 方有執은 傷寒의 “六經”은 經絡의 經과는 같지 않으며 “六部”라고 하여 臟腑와 四肢 百骸를 包含한다고 主張하여, 後에 柯琴이 主張한 地面說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4. 張志聰은 三陽三陰 六經氣化論으로 傷寒을 認識하여 生理的인 面에 있어서는 人身 六氣의 生産과 分布, 運行 等の 狀況을 說明하고, 病理的인 機轉도 이로써 說明하였다.

5. 柯琴은 “六經”을 全身의 六個 區域으로 區別하여 有關한 臟腑, 經絡, 肌表, 組織 等を 有機的으로 連結시켜 經絡에만 局限 시키지 않았으며, 經絡은 六經의 脈이 흐르는 通路로 認識하여, “六經”으로 傷寒, 雜病 等 모든 病을 治療하는 基準으로 삼았다.

6. 尤怡는 六經提綱은 全面的인 것이 아니므로 全體的인 觀點에서 各各의 條를 參照하여 病 症狀을 把握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7. 陳念祖는 《傷寒》六經과 《內經·熱論》은 明確히 區分되어야 하며, 《傷寒》의 “六經”이 百病을 統率한다고 認識하였다.

8. 以上에서 諸家의 主張을 研究하는 가운데 後代(清代以後)에 올수록 “六經”解釋에 있어 諸家의 主張하는 바를 하나 하나 浮刻시키는 것 보다는 全體的으로 結合하여 “六經”을 解釋하려는 勞力을 省할 수 있었다.

9. 著者는 陳念祖가 말한 《傷寒論》은 비록 傷寒을 論하고 있지만 百病이 그 中에 있으며, 안으로 臟腑, 밖으로 形身, 그리고 氣血의 生成, 經俞의 會通, 神氣



의 出入, 陰陽의 變易, 六氣의 循環, 五運의 相制, 上下의 交合, 水火의 相濟, 寒熱 虛實, 溫清補消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 바가 없으니 疾病이 아무리 많고 治法이 아무리 多樣해도 모두 六經中에 있다는 主張과 생각이 一致함을 말씀드립니다.

10. 六氣의 變化하는데에 應하여 人體도 그에 따르는 病이 發生하는 것이므로 六氣의 主함을 따라 人體의 六經病도 그 變化와 같이 治療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人體의 機能이 自然과 合流되어 發揮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李正來 : 東醫要諦眞詮, 서울, 泰昌出版社, 1992.
2.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4.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5. 尹暢烈 :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6. 朱肱 : 增注類證活人書序論, 서울, 南山堂, 1987年.
7. 尤怡 :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年.
8. 柯琴 :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年.
9. 葉成炳外 1 人 : 傷寒明理論闡釋, 四川,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年.
10. 那拓祺外 1 人 : 《傷寒總病論》釋評,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7年.
11. 陳修園 : 陳修園醫書七十二種,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74年.
12. 姜春華 : 歷代中醫學家評析,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年.
13. 裴浦然外 5 人 : 中國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4. 萬友生外 9 人 : 踰嘉言醫學三書,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4.
15. 北京中醫學院 :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16. 成都中醫學院 : 傷寒論釋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17. 楊士孝注 : 二十六史醫家傳記新注, 遼寧, 遼寧大學出版社, 1984.
18. 王琦外 4 人 :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19. 陸九芝外 4 人 : 世補齊醫書, 臺北, 五州出版社, 1981.
20. 李潤海 : 中國醫藥學家史話, 臺北, 明文書局, 1984.
21. 任應秋 : 任應秋論醫集, 北京,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4.

22. 林輝鎮：傷寒論新解，臺北，益群書店有限公司，1986。
23. 張錫純：醫學衷中參西錄，臺北，旋風出版社，1978。
24. 程士德外 2 人：素問註釋匯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25. 鐘新淵：寓意草評注，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8。
26. 陳大舜：中醫各家學說，星港，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5。
27. 陳道根外 1 人：江蘇歷代醫人志，天長，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5。
28. 秦之濟：清代名醫醫話精華，旋風出版社，1980。
29. 蔡陸仙編：中國醫藥叢書，臺北，新聞豐出版社，1981。
30. 萬友生外 9 人校注：《喻嘉言醫學三書》的體會，新中醫，1984年 第6期。
31. 徐景藩：喻嘉言論胃的學術思想概說，中醫雜誌，1987年 11月 第28卷 第11期。
32. 孫志遠外 2 人：王淑和編次《傷寒論》之功不沒，中醫雜誌，1986年 10月。
33. 余國俊：張錫純對大氣下陷證的鑑別診斷，中醫雜誌，1983年 第8期。
34. 劉楊雲：喻嘉言論治伏氣春寒的探討，浙江中醫雜誌，1983年 第18卷 第6期。
35. 張再良：候氏黑散與喻昌的真揆設，上海，上海中醫藥雜誌，1986年 第1期。
36. 陳瑞春：喻嘉言論秋燥，運南中醫雜誌，1984年 第5期。